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4차 세션,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의 사역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4,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고 바울을 새 언약의 사역자로 볼 것입니다.
비판은 사회에서 흔한 일이며, 사역자도 예외는 아니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척도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척도를 평가 도구로 삼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사역자를 평가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살펴보면서 답할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누가 목사인가? 목사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실제로 무엇이 목사를 만드는가? 목사가 결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받았고, 그런 비판에 직면해서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대한 매우 명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목사로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비판을 견뎌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장에서 주장하듯이, 그는 새
언약의 목사였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모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준비한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와 같으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유능하게 하셨으며, 글자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것입니다. 글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줍니다.

2장 17절로 빨리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충분한 진술을 한 다음, 자신을 많은 행상인들과 구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사역의 충분함, 자신의 사역의 충분함뿐만 아니라 행상인들보다 자신의 사역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립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데 담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3장 1절을 읽고 우리가 스스로를 칭찬하기 시작하는지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 두 질문 뒤에는 모두 '아니요'라는 답이 예상되는데, 바울에 대한 실제적인 비난이나 예상되는 비난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바울은 사도들의 역할을 삶의 향기로 말했고, 2장 17절에서는 자신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 어서, 그는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다시 한 번, 오, 당신은 탐닉하고 있어요. 당신은 악명 높은 자기 칭찬 습관에 탐닉하고 있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요. 바울이 대답한 두 번째 주장은 설교로 이익을 얻는 많은 사람들 중 일부가 한 것입니다. 오늘날과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사역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추천서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져왔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썼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구별하고 사도직 사역을 옹호하고 바울은 자신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실제적인 의미와 결과를 가진 신학적 문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사역을 통해 삶을 바꾸셨습니다.

새 언약처럼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합니다. 모세의 사역의 대부분처럼 그의 사역은 강박함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에서 많은 것을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목사인가? 무엇이 사람을 사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일부 침입자들이 바울의 추천서 부족에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추천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구한 적이 있다면, 잠재적 고용주가 당신에 대한 추천서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받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알다시피, 소개장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그것은 초기 교회에서 순회 설교자의 신임장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추천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좋아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세인트 크로이 교회의 집사인 우리 자매 피비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게 합당한 대로 주님 안에서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도우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가 평안히 길을 가도록 서둘러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노라. 우리 형제 아폴로에 관해서는,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너희를 방문하라고 강력히 권하였지만, 지금 오는 것은 그의 뜻에 전혀 맞지 아니하더라.

그는 기회가 되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추천서를 주고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요, 저는 면제라고 말합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사역하기 위해 추천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추천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칭찬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추천서에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안수 증명서, 추천서 또는 신학 학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어떤 교회들은 당신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최소한의 학위, 사악한 신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요. 때로는 종이, 웅변, 개인적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수 증명서나 신학 학위가 당신이 사역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당신은 당신의 이름 뒤에 온도계만큼의 학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존 웨슬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존 웨슬리에게 신은 당신의 교육이나 학습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신은 또한 당신의 무지에 관심이 없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리가 건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격 증명은 사역에 필요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편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편지는 중요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종이 한 장 자체가 결코 적절한 자격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역의 참된 자격 증명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서신이 됩니다. 바울의 사역과 사명은 그의 사역의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애니 존슨 플리트가 쓴 글을 좋아하는데,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주의한 세상이 읽을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자의 신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이며, 행동과 말로 주어집니다. 글자가 비뚤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글자가 피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의 반대자들은 신임장으로서 편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로마서 16장 1절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 2절을 읽어보면, 바울 자신도 개종하기 전에 편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시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고, 22장 5절에서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추천서에 관해 읽을 때, 바울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대에 행해졌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글썄, 그가 우리에게 그의 편지를 보여주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추천서가 필요한가?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서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것은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대담한 진술을 합니다.

고린도 신자들을 부르는 것은 편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 성령으로 쓰인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가 실제로 사도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강력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의 삶,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활동은 바울 자신의 마음에 지울 수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서 걸어온 방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3절에서 바울은 이 신성한 역사가 그들 자신의 마음과 삶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편지가 읽히려면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지는 작성자의 생각과 개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편지를 읽으면 항상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문장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쓸 때, 당신은 그저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단어를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편지를 통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읽고 있지만,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의 단어 하나하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읽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편지입니다. 고린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의 효과적인 사역은 그의 부름의 타당성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소개장과 칭찬의 편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 사무실, 직장 등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편지를 제시하는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을 주목하세요. 이 구절의 기업적 뉘앙스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전체 회중은 단지 하나의 편지를 구성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것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편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것은 방향과 생각에서 기업적입니다.

오늘날 지역 회중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함께, 집단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반영합니다. 함께.

함께. 알다시피, 바울은 그의 추천서가 비평가들의 추천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비평가들의 편지는 인간이 작성하고 종이에 썼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역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스스로 임명했습니까? 그의 사역은 그의 개인적 성장의 결과였습니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의 사역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에게 봉사할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쓴 편지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소망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도 자신의 자원과 힘에 맡겨진 사역에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항소 법원은 5절과 6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유일한 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고 그리스도께 진실한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최종 항소 법원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역에 대한 유일한 지지는 하나님의 눈에 통과되고 그리스도께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사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지시되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신적 사명을 받는 것은 신적 장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적 사명을 받는 것,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는 그의 장비는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도구로 불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다메섹 도상 에서 경험했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자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은혜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두 가지 기본적 특징을 대조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옛 언약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없는 기록된 코드였습니다.

언약의 책에서, 당신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새 언약의 기초는 역동적이고 만연한 영입니다. 편지의 기록된 법전은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당신은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비준되었고 성찬 잔으로 상징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영을 통해 작용한다. 글자가 무력했던 곳에서 성령은 강력하다.

성령은 삶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믿는 자로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강력합니다. 바울의 사역과 옛 언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주님이 걸으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그는 그것이 자신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이런 것들에 충분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지금 그 질문에 조금씩 답하고 있으며, 새 언약의 뛰어난 영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6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분함을 더 분명하고 더 충만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서 충분하게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션에서 2장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바울이 신자들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종으로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종으로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새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 영의 사역이었고, 은혜의 사역이며,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이며, 화해의 사역이며, 정직함이 특징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역자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4장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7절에서, 글자나 돌판에 새긴 죽음의 직분이 영광으로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였거든, 그 영광은 이제 제쳐진 것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으로 임하겠느냐?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었거든 하물며 의롭다 하심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느니라. 과연 영광스러웠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해 영광을 잃었느니라. 제쳐진 것이 영광으로 말미암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영광으로 임할 것이니라.

그 이후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쳐두어지는 영광의 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베일을 두른 것과 같이 담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참으로,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의 낭독을 들을 때, 그 베일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제쳐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키면 베일은 제거됩니다.

이제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베일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고,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 곧 영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장에서 바울의 생각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쓰신 칭찬의 편지라는 생각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에 대한 성찰로 발전했습니다. 그 새 언약에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세요. 이제 그 인용문은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경제와 새 경제를 비교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각각은 영광이 수반된 사역을 포함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이 너무나 우월해서 옛 언약의 영광은 비교에서 무의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촛불이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과 같습니다.

촛불을 켜면 보이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촛불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촛불의 빛은 여전히 있지만, 더 밝은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의 빛이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지만, 지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촛불의 빛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희미한 영광이에요.

그것은 비교입니다. 쓸모없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교의 관점에서 새로운 언약의 영광이 훨씬 더 좋고 옛 언약의 영광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언약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 언약과 비교했을 때, 100개의 흰 불빛이나 200개의 흰 불빛이 있는데 왜 촛불을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당신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범한 스토브로 요리해 왔고,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가스 스토브나 가스레인을 가져온다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바울을 발견합니다. 7절에서 18절까지의 이 구절은 매우,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가능한 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출애굽기 34장 29-35절의 서사에서 선택된 요점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7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깎은 돌판과 돌비의 직분이 영광으로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거든, 지금은 제쳐 놓은 영광이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으로 임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었거든 하물며 의롭다 하심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느니라.

그래서, 이 세 구절에서, 당신은 모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암시를 봅니다. 당신이 보듯이,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판을 가지고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습니다. 너무 밝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똑바로 볼 수 없었고, 그들은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을 주는 데 그런 영광이 수반되었다면, 죽음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역이나 행정에 그런 영광이 수반되었다면, 의를 가져오는 영의 영광스러운 사역은 얼마나 더 하겠는가? 모세의 얼굴은 빛났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글썄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영광스러웠을까요. 옛 질서의 독특하고 긍정적인 특징이었던 것이 새로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이어야 하지만, 더 큰 차원에서 말입니다. 옛 질서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질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경제는 더 큼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언약의 비유를 사용하여 그의 사역이 그의 반대자들의 사역보다 우월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 언약의 사역과 효과를 대조하고, 이 새 언약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더 영광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그는 새 언약이 사역 측면에서 옛 언약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죄인을 죽인 반면, 새 언약은 죄인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은 당신의 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죄에서 벗어날 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당신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새 언약 아래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성한 용서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봅니다. 율법은 정죄와 죽음을 선포하지만, 복음은 생명과 화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사역과 관련하여 옛 언약의 사역은 그치고 새 언약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12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베일을 덮고 베일을 벗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12절과 13절을 살펴보세요.

그는 12절과 13절에서, 만일 제쳐 놓은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12절, 그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큰 담대함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큰 담대함으로 행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베일을 두른 것과 같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참여자로서, 그와 그의 동료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것이 영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이며, 결코 대체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제 말은, 화려함에서 능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들이 설교할 때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숨길 것이 없었지만, 두려움 없는 쏫불을 가질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이러한 개방성이라는 생각이 바울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대한 그의 주석을 계속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언급한 그 구절에서 모세와 야훼가 회동할 때마다 모세가 돌아올 때마다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의 광채에 눈이 부셨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을 마치면 그는 얼굴을 베일에 가렸지만, 모세가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때마다 그는 나을 때까지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제 구약성서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점차 희미해지다가 사라졌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약성서에서 바울이 모세가 얼굴을 가리거나 가린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광채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반사된 영광의 광채를 완전히 잃을 때까지 계속 응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 확립된 질서가 가려지고 사라질 운명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새로 확립된 질서는 가려지고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모세의 얼굴에 베일을 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덧없는 것의 끝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개인적인 당혹감을 피하고 싶어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중 어느 것도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언약의 사역자라는 것뿐이며, 이 더 나은 언약은 마주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멈춘 곳에서 멈춥니다. 왜 베일 위에 베일을 두르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관련이 없는지, 하지만 바울은 그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람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사역이 효과성 면에서 옛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두려워했고 진실에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지키는 자들을 속박하는 율법은 그들의 마음에서 베일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모세가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도는 칭찬할 만한 것이었지만,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강박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의 낭독을 들을 때, 그 베일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베일을 쓰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그의 베일을 쓴 얼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각 능력이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무감각함의 증거를 그가 살던 당시, 옛 언약이 회당에서 읽혔을 때까지, 바울이 살던 당시, 옛 언약이 회당에서 읽혔을 때, 토라가 연구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모세의 질서의 무상함, 일시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가렸는데, 모세의 얼굴을 가린 베일과 비교된다. 바울은 그것을 같은 베일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왜? 두 경우 모두 베일은 환상을 막았다.

당신의 베일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비전을 막았거나, 어쩌면 모세 경제의 일시적인 본질에 대한 무지의 베일과 동일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베일은 믿지 않는 유대인의 경우에는 벗겨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만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에 베일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는 말이 안 통합니다. 칠십인역으로 읽으면 출애굽기 34장 34절에 모세가 주님 앞에 들어가 그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나갈 때까지 베일을 벗었습니다. 칠십인역 출애굽기 34장 34절입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제 칠십인역은 구약의 그리스어 버전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인용한 것을 보고, 바울이 인용한 것을 보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호소합니다.

그는 나갈 때까지 베일을 벗곤 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암시하고 시제를 바꾸었기 때문에 세 개의 그리스어 단어만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기 16절에서 동사의 주어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설 때 베일이 움직입니다.

동사 turns의 주어는 실제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15절의 유대인의 마음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저는 마지막 옵션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맥락에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께로 돌아설 때 베일이 벗겨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설 때 베일이 벗겨집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14절에서 이미 말한 것을 다시 말하고 확대합니다.

16절에서 그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베일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의 성취의 끝, 주님은 이제 마음에서 베일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적 지각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율법을 대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새 창조물이며 그 구절은 옛 것이 사라졌고 새 것이 왔다고 말합니다 .

그런 다음 17절로 갑니다. 우리는 17절로 갑니다. 문맥에서 벗어나 이 구절은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령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많은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배할 자유, 노래할 자유, 박수 칠 자유로 인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이해해 주세요. 바울이 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손뼉을 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그런 목적에 쓰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 옛 언약, 성령, 율법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서로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소리칠 자유, 노래할 자유, 춤출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맥락에서 그것이 답이 아니며, 우리가 인용하고

사용하는 그 구절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롭게 춤추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러니 문맥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지칭하는가입니다. 문맥에서 벗어나서, 이 구절들은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절은 16절을 설명하는데, 주님께로 돌이키면 휘장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34장 34절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이 휘장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 향해야 할 분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언이 아니라 영에 대한 확언입니다.

그것은 영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하나의 관점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리스도와 영 사이에 기능적 동등성을 발견합니다. 14절에서, 베일을 제거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베일을 제거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16절에서 그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헤라클레스 또는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영으로 식별된다고 믿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지적인 요점은 영이 권위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주님이시지만, 그의 임재는 속박이 아닌 해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일을 벗길 뿐만 아니라, 죄의 속박, 죽음의 속박, 의로움을 얻는 수단인 율법의 속박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말한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속박.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의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자유. 그러므로 그가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할 때, 그는 단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8절에 이르러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일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영에게서 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이미 주로 그의 사도적 사역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18절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대한 그의 주석의 배경에 반하여,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그의 사역에 대한 것이었지만, 18절은 그 자신의 경험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넘어섭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한 남자만, 또는 한 여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전히 베일을 쓴 마음으로 율법을 읽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베일을 벗은 얼굴로 복음의 거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성격에 내적으로 드러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기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강렬함, 광채, 아름다움, 빛남 또는 광채를 잃기는커녕, 새 언약 아래서 경험하는 영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아니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얻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순간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점진적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점진적입니다. 그것은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음이 없어야 할 성막처럼 돌은 그 자리에서 주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들어맞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영이신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으로 회심한 후에는 성령을 통한 해방이 있고, 성령을 통한 변형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자유가 있고, 성령을 통한 변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셨고, 우리가 목사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역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가?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 증명은 성령의 자격 증명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칭찬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단지 요약일 뿐이기 때문에 흥미로운데, 라틴어 단어인 commendare 는 두 단어를 의미하는데, 두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함께 헌신하는 것, 무언가를 헌신하는 것, 헌신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서한이 필요한가요?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추천서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칭찬, 성령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 기억하세요, 학위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지한 설교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파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에 문제를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무지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더 나은 약속에 근거한 새 언약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킬 때 성령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4, 고린도후서 3,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